해외경제정보 제2011-3호
2011. 1. 17

해외조사실 종합분석팀
과 장 이홍직(5293)
노진영(4280)
조사역 채민석(5285)

신흥시장국 인플레이션 현황과 정책대응

◆ 2010년 하반기 이후 대부분 신흥시장국에서 물가상승세가 확대

이러한 물가 오름세는 물가상승폭이 컸던 2008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이를 제어하기 위해 과도한 긴축정책을 시행할 경우 세계경제 회복을 이끌었던 이들 국가의 성장력이 급속히 쇠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등장

◆ 신흥시장국의 인플레이션은 ①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차질 등으로 식품가격이 급등하고 ②빠른 경기회복에 따라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하고 있으며 ③완화적 금융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신흥시장국은 ①정책금리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등 통화정책으로 대처하는 한편 ②필요시 식품을 중심으로 가격 및 물량에 대한 직접규제도 동원하여 적극 대응

다만 환율절상을 통한 대응은 수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소극적인 입장

◆ 일부에서는 신흥시장국의 인플레이션이 변동성이 심한 식품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식품가격 상승의 배후에 구조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은 편

1. 인플레이션 현황

□ **2010년 하반기 이후 대부분 신흥시장국에서 물가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

o 이러한 물가오름세는 브라질(5.0→5.1%; 상반기→하반기, 이하 동일), 러시아(6.6→7.2%), 중국(2.6→4.0%*) 등 BRICs 국가**와 태국, 말레이시아, 칠레 등 대부분의 신흥시장국에서 나타나고 있음

* 7~11월중 평균

** 인도는 하반기 들어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8%를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

o 이는 주요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이 1%대에 머물고 있는 것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현상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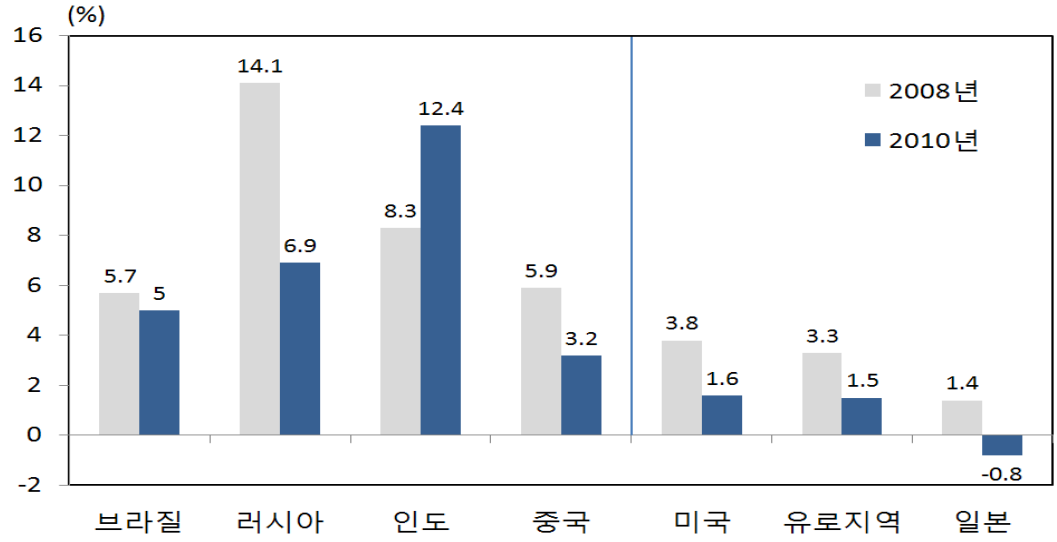
	2008	2009	2010					
			연간[1)]	상반기	3/4	10	11	12
브라질	5.7	4.9	5.0	5.0	4.6	5.2	5.6	5.9
러시아	14.1	11.7	6.9	6.6	6.2	7.5	8.1	8.7
인도	8.3	10.8	12.4	14.5	10.3	9.7	8.3	-
중국	5.9	-0.7	3.2	2.6	3.5	4.4	5.1	-
인도네시아	9.8	4.9	5.1	4.0	6.2	5.7	6.3	7.0
태국	5.5	-0.8	3.3	2.6	3.5	4.4	5.1	-
말레이시아	5.4	0.7	1.7	1.4	1.9	2.0	2.0	-
대만	3.5	-0.9	1.0	1.2	0.4	0.6	1.5	1.3
싱가포르	6.6	0.6	2.7	2.0	3.4	3.5	3.8	-
칠레	8.7	1.5	1.4	0.5	2.3	2.0	2.5	3.0
미국	3.8	-0.4	1.6	2.1	1.1	1.2	1.1	-
유로지역	3.3	0.3	1.5	1.3	1.7	1.9	1.9	-
일본	1.4	-1.4	-0.8	-1.1	-0.8	0.2	0.1	-

주 :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칠레, 대만은 월평균, 기타국가는 2010.1~11월 평균
자료 : Bloomberg

□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흥시장국의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폭이 컸던 2008년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나

이를 제어하기 위해 신흥시장국이 과도한 긴축정책을 시행할 경우 2009년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끌었던 신흥시장국의 성장력이 급속히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등장

2008년과 2010년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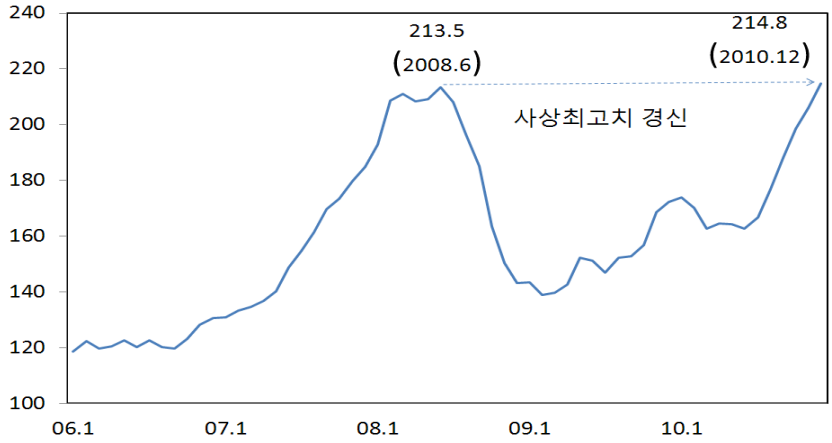
2.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1 식품 가격 상승

□ **2010년중 식품 가격은 사상 최고치로 상승**

o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산출하는 식품가격지수는 2010.12월 214.8을 기록하여 종전 최고치였던 2008.6월의 213.5를 경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식품가격지수[1)]



주 : 주요 농·수·축산물 55개 품목 자료 : FAO

□ 이러한 가격 폭등세를 초래한 원인은 다음과 같음

① 신흥시장국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식품소비가 추세적으로 증가*** 하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겹치면서 수요가 급증****

* 인도는 지난 5년간 1인당 소득이 39% 증가하면서 우유·계란·육류·생선 등을 정기적으로 소비하는 인구가 2억2천만명 늘어난 것으로 추정(인도중앙은행, 2010.10월)

** 인플레이션이 원자재, 식품 등 공급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수요가 뒷받침될 때 그 영향이 더욱 증폭되는 것으로 분석. IMF가 12개 신흥시장국을 분석한 결과 output갭이 근원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계수값 0.14 → 0.24) 상품가격이 근원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강해지는 것(계수값 0.14 → 0.36)으로 나타남(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2010.10)

중국과 인도의 1인당 육류 소비량

(kg)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국	닭고기	7.4	7.7	7.9	8.6	9.0	9.1	9.3
	돼지고기	31.2	34.5	35.0	32.3	35.1	36.5	37.1
인도	닭고기	1.1	1.7	1.8	2.0	2.2	2.2	2.3

자료 : USDA, PSD Online

② 기상 이변 등으로 **주요 곡물산지에서 수확이 부진**[*]

* 인도서부지역의 폭우, 중국의 폭설 및 홍수, 미국 및 아르헨티나의 가뭄, 호주의 홍수 등 주요 곡물생산지의 기상 이변으로 2010/11년 시즌 세계 곡물 생산량은 2.0% 감소할 전망

세계 곡물 수급 전망

(2011.1월 현재)

(백만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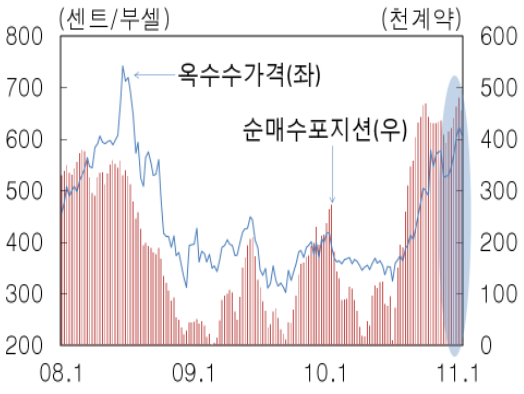
	2008/09	2009/10(A)	2010/11(B)	B/A
생산량	2240.8	2231.2	2187.5	-2.0
소비량	2158.5	2192.4	2244.4	2.4
기말재고량	451.4	490.2	433.4	-11.6

자료 : USDA

③ **투자자금의 유입이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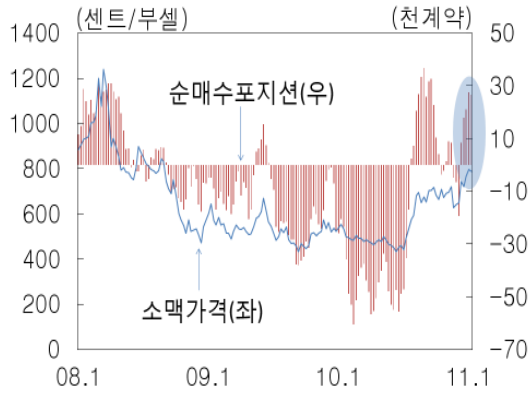
* 비상업자금의 옥수수 선물순매수 포지션은 2010.12월말 48만계약으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으며 소맥도 2010년 12월 이후 순매수로 전환하며 12월말 2.7만계약까지 증가

옥수수 비상업자금 선물순매수 포지션



자료 : Bloomberg

소맥 비상업자금 선물순매수 포지션



자료 : Bloomberg

□ 한편 신흥시장국의 경우 **식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가중치)이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식품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구조

o **식품 비중은 BRICs가 평균 39%**[*]로서 3대 선진국 평균 17%의 두 배가 넘으며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도 30%를 훨씬 웃도는 수준

* 특히 인도는 60.2%로서 가장 높음

소비자물가 구성항목 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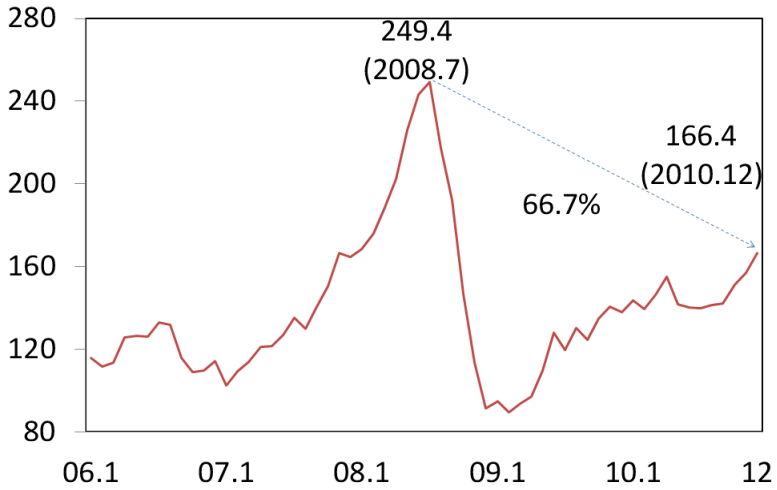
(%)

	식품	에너지	주거
브라질	22.6	9.3	4.1
러시아	40.0	2.4	8.8
인도	60.2	14.2	-
중국	33.0	5.0	15.0
평균	**39.0**	**7.7**	**9.3**
인도네시아	45.3	15.2	13.8
태국	36.1	9.7	15.9
말레이시아	31.4	13.8	16.4
대만	25.1	3.7	20.0
싱가포르	23.4	5.3	20.0
칠레	18.9	8.9	8.1
평균	**30.0**	**9.4**	**15.7**
미국	13.7	4.1	42.0
독일	10.4	7.5	23.0
일본	25.9	7.4	20.4
평균	**16.7**	**6.3**	**28.5**

자료 : IMF, CEIC

□ 2010년중 에너지가격도 상승하였으나 2008년 최고치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어서 식품가격만큼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IMF 에너지가격 지수[1)]



주 : 원유, 천연가스, 석탄
자료 : IMF

2 빠른 경기회복에 따라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

□ 선진국의 산업생산이 아직 금융위기 직전인 2008.8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대부분 신흥시장국들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

주요국의 산업생산

(2008.8=100)

	2008.12	12	2010.3	6	9	11[1)]
브라질	80.6	96.1	101.8	99.5	99.9	100.1
러시아	86.3	92.5	94.9	96.6	97.4	98.4
인도	108.0	127.4	136.7	119.2	119.1	116.3
인도네시아	95.1	101.1	98.2	102.5	98.7	101.4
태국	81.4	106.7	109.3	104.4	103.1	103.0
말레이시아	87.3	93.9	99.8	96.2	95.9	95.5
대만	68.1	100.6	105.6	110.5	108.4	114.2
싱가포르	90.9	105.2	129.1	124.8	125.4	129.1
칠레	103.2	102.8	86.6	97.2	96.5	104.4
미국	94.0	92.6	94.0	95.7	97.1	98.0
유로지역	89.0	86.1	88.9	90.5	91.1	92.9
일본	82.4	87.3	91.6	91.8	89.7	88.7

주 : 1) 인도네시아는 10월, 미국은 12월 기준
자료 : Bloomberg,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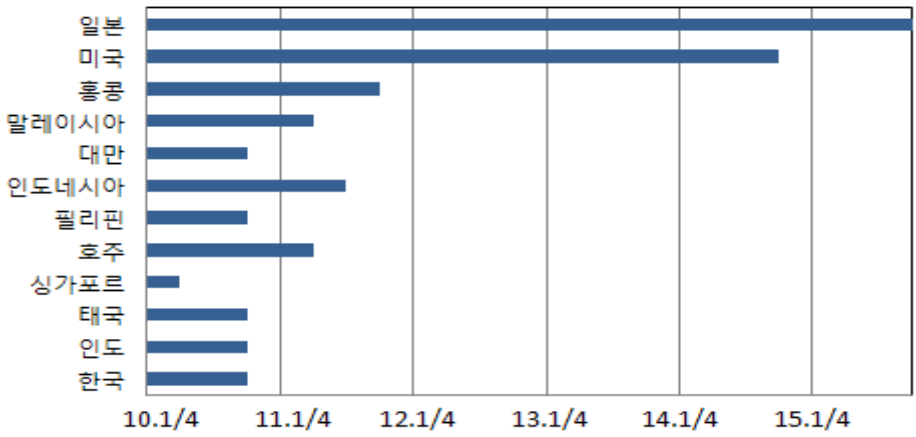
□ **성장세 확대로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

o IMF에 따르면,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 한국에서는 2010년중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었던 마이너스 GDP갭이 플러스로 돌아섰으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도 금년 중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2014~15년에 가서야 플러스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주요국의 GDP갭[1] 플러스 전환 시기 변화



주 : [(실제 GDP-잠재 GDP)/잠재GDP]×100
자료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2010.10), 골드만 삭스(2009.12)

o Morgan Stanley가 신흥시장국(27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GDP 갭이 플러스로 전환되었거나 조만간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비중(경제규모 기준)이 82.0%**로 대다수를 차지**

* GDP갭이 플러스이거나 영에 근접해 있거나, 마이너스 폭이 작은 세 그룹을 지칭

** 이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국가의 비중은 67.9%

신흥시장국의 GDP갭 평가[1]

GDP갭	인플레이션	
	우려	비우려
큰 마이너스(14.0)	러시아 등 3개국(8.5)	멕시코(5.0)
작은 마이너스(16.0)	인도네시아 등 2개국(5.4)	칠레·말레이시아·태국 등 9개국(10.8)
영에 근접(25.0)	브라질·인도 등 3개국(21.9)	대만 등 2개국(3.3)
플러스(41.0)	중국·싱가포르 등 4국(40.6)	—
합계(96.0[2])	12개국(76.5)	12개국(19.1)

주 : 1) ( )안은 신흥시장국(27개국)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의 비중(%)
2) 경제규모가 작은 3개국 제외한 결과 100%에 미달
자료 : Morgan Stanley Research, 2010.12.15.

□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수요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

o 주요 선진국의 근원인플레이션은 1% 전후에서 안정되어 있으나 러시아, 인도네시아, 칠레 등은 최근 들어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습

주요국의 근원인플레이션

(%)

	2008	2009	2010					
			연간[1)]	상반기	3/4	10	11	12
브라질	0.5	0.4	0.4	0.5	0.2	0.4	0.5	0.6
러시아	13.7	12.1	5.0	5.5	5.1	5.8	6.2	-
중국	0.9	-1.1	0.9	0.6	1.1	1.3	1.5	-
인도네시아	-	5.7	4.0	3.9	4.1	4.2	4.3	4.3
태국	2.3	0.3	0.9	0.7	1.2	1.1	1.1	1.4
말레이시아	4.6	-1.1	1.3	1.2	1.4	1.6	1.5	-
대만	3.1	-0.2	0.4	0.2	0.6	0.5	0.9	-
칠레	8.5	2.8	0.5	-0.8	1.6	1.5	2.0	2.5
미국	2.3	1.7	1.0	1.1	0.9	0.6	0.8	-
유로지역	1.8	1.4	1.0	0.9	1.0	1.1	1.1	-
일본	0.1	-0.7	-1.3	-1.4	-1.5	-0.8	-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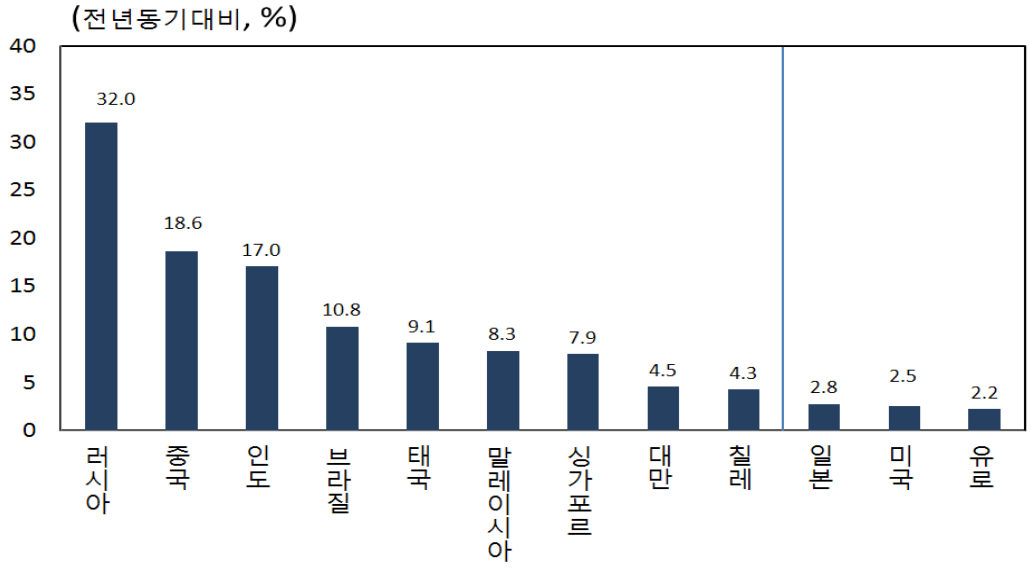
주 :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칠레는 월평균, 기타국가는 2010.1~11월 평균
자료 : Bloomberg

3 완화적인 금융여건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및 외국자본 대규모 유입 등에 기인하여 **신흥시장국의 통화량은 큰 폭으로 증가**

o 2010년 3/4분기중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통화증가율(M2기준)이 10%를 상회하고 태국, 말레이시아도 8% 전후의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선진국의 통화증가율은 2%대

2010년 3/4분기 주요국 통화량(M2) 증가율



자료 : CEIC

□ 일부 신흥시장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주요국 정책금리

(%, %p)

	2008년중 최고(A)	금융위기중 최저(B)	최근(C)	C－B	C－A
브라질	13.72	8.75	10.75	2.00	-2.97
러시아	13.00	7.75	7.75	0.00	-5.25
인도	9.00	4.75	6.25	1.50	-2.75
중국	7.47	5.31	5.81	0.50	-1.66
인도네시아	9.50	6.50	6.50	0.00	-3.00
태국	3.75	1.25	2.00	0.75	-1.75
말레이시아	3.50	2.00	2.75	0.75	-0.75
대만	3.625	1.25	1.625	0.38	-2.00
싱가포르	5.38	5.38	5.38	0.00	0.00
칠레	8.25	0.50	3.25	2.75	-5.00
미국	4.25	0～0.25	0～0.25	0.00	-4.25
유로지역	4.25	1.00	1.00	0.00	-3.25
일본	0.50	0～0.10	0～0.10	0.00	-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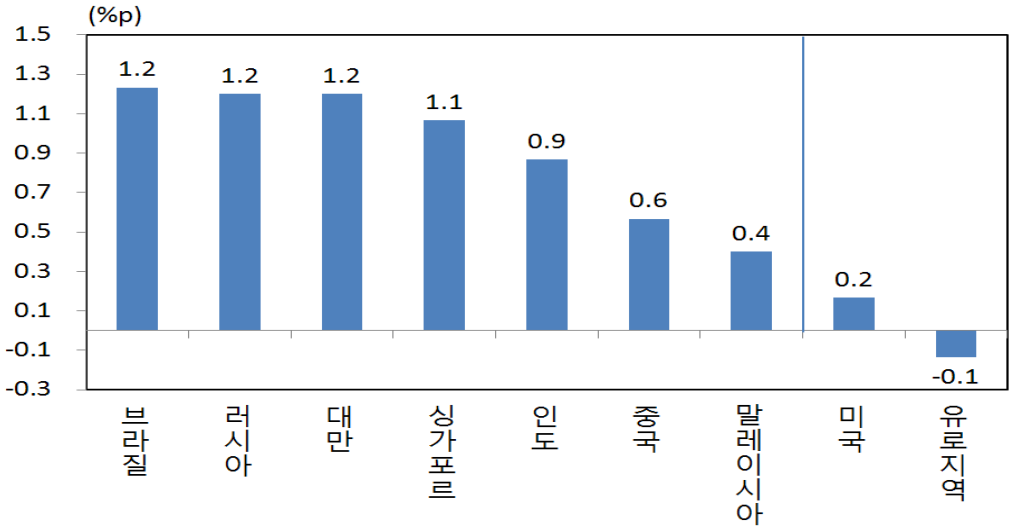
자료 : 각국 중앙은행

□ 이를 반영하여 **신흥시장국의 기대인플레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2011년 1월을 기준으로 할 때 러시아, 브라질, 대만, 싱가포르 및 인도의 기대인플레이션(1년 이후)은 2010년 1월 대비 1%p 가량 상승

주요국 기대인플레이션 상승폭[1)]

(2010.1월~2011.1월)



주 : 2011.1월과 2010.1월 1년후 CPI 상승률 전망차(3개 투자은행 평균,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2010.4 계산방식 적용) 단, 미국은 2010.12월 미시건대 서베이

자료 : JPMorgan,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Bloomberg

3. 정책대응

◆ 대부분의 신흥시장국은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식료품 등의 가격 및 물량을 직접 통제

1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점진적으로 축소

□ 대부분의 국가가 정책금리를 인상

o 인도·말레이시아(2010.3월)는 2010년초부터, 브라질(4월), 칠레(6월), 대만(6월), 태국(7월)은 중반 이후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

— 특히 칠레와 인도는 각각 7회 및 6회 연속 인상

o 중국은 2010.10월부터 정책금리를 상향 조정하기 시작

□ 한편 **높은 금리수준으로 자국 화폐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국가**들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지급준비율 인상 등 양적 긴축정책을 병행**

o 브라질은 2010.7월 정책금리를 10.75%까지 인상한 후 더 이상의 금리정책 사용은 자제하면서 같은 해 12월 지급준비율을 인상

o 위안화 절상 문제에 민감한 중국은 지급준비율 인상을 주된 수단으로 활용*

* 지급준비율을 2011.1월까지 7회(2010년중 6회) 인상한 결과 현재 19.0%(대형은행 기준)로 사상 최고수준

주요 신흥시장국의 통화정책 긴축조치

국가	정책금리 인상			기타 통화정책 조치
	최초 인상시점	인상 횟수	최근 인상시점	
브라질	2010.4월	3회	2010.7월	· 지급준비율 인상(2010.2·12월)[1]
러시아	-	-	-	· 예금금리 인상(2010.12월)
인도	2010.3월	6회	2010.11월	· 지급준비율 인상(2010.2월 2회)
중국	2010.10월	2회	2010.12월	· 재할인금리 인상(2010.12월) · 지급준비율 7회 인상 (2010.1·2·5·11[2회]·12월, 2011.1월)
인도네시아	-	-	-	· 지급준비율 인상(2010.11월)
태국	2010.7월	4회	2011.1월	
말레이시아	2010.3월	3회	2010.7월	
대만	2010.6월	3회	2010.12월	· 재할인금리 인상(2010.6 · 10 · 12월) · 지급준비율 인상(2010.12월)
칠레	2010.6월	7회	2010.12월	

주 : 정기예금 기준
자료 : 각국 중앙은행

2 가격 및 물량에 대한 직접 규제

□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가격통제나 물량규제를 통해 식품가격 안정을 도모**

o 중국은 생필품 가격통제, 감독관리 강화, 농산물 공급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2010.11.17일)

— 통화량 증가 억제를 위해서 중국인민은행은 수시로 은행장 회의를 소집하여 창구지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0년에 은행별 · 기간별 신용할당제를 실시한 데 이어 금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할 예정

o 인도는 음식의 주재료인 양파 가격이 폭등하자 동 품목의 수출을 전면 금지(2010.12.20일)

o 러시아는 곡물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의 방출을 결정하였으며 곡물수입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검토

물가안정을 위한 미시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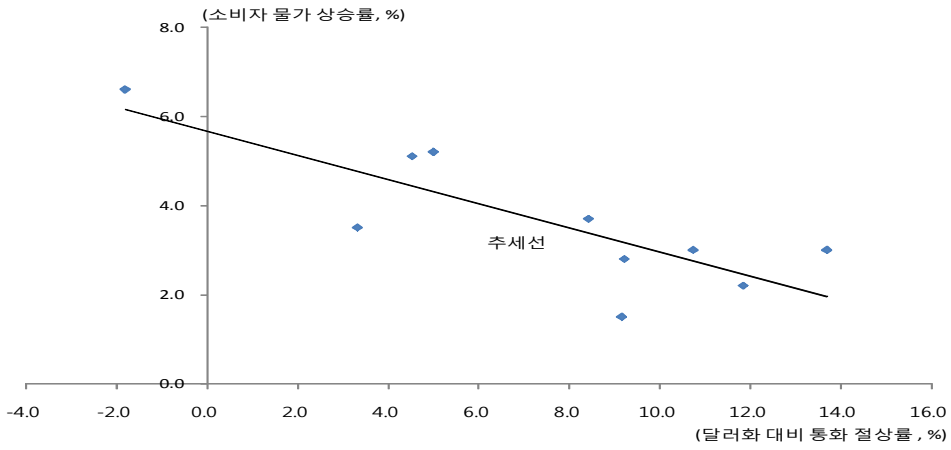
국가	물가안정 대책
러시아	► 정부 곡물 비축물량의 방출 결정(2010.11월)
인도	► 양파의 수출 금지(2010.12월)
중국	► 농산물 공급확대 - 곡물, 식용유, 육류 등 생산 및 공급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 생필품 가격통제 - 주요 생필품 가격통제, 정부통제 자원 및 서비스가격 적정화 등 ► 감독관리 강화 - 매점매석행위 등 처벌강화, 가격공개제도 정비 등

3 다만 환율절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대응에는 소극적

□ 최근과 같이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국제 식품 및 원자재가격이 상승할 때는 환율절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이 유효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음

o 2010년중 주요 신흥시장국 통화의 미달러화 대비 평균 절상률은 6.5%였으며 **절상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물가상승률이 낮은 경향**

주요 신흥시장국 통화절상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 그러나 신흥시장국들은 지나친 환율절상이 국제경쟁력 약화, 추가적 외국자본 유인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보아 이를 **인플레이션 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는 소극적**인 모습

o 중국은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는 가운데서도 소폭의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중국 외교부는 위안화 절상으로 미중 무역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위안화 개혁은 점진적일 것이라고 확인(Bloomberg, 2011.1.13일)

o 동남아시아* 및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자국 통화가치의 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규제(capital control)를 도입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려는 움직임

* 태국은 외국인채권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15%) 면세조치를 폐지(2010.10월)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현행 1%→ 5%[2011.3월] →8%[6월])

** Mantega 브라질 재무장관은 미국이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칠레 중앙은행은 페소화 가치 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120억달러 규모의 미달러화 매입계획을 발표(Wall Street Journal, 2011.1.5일)

□ 한편 싱가포르는 4월중 명목실효환율 정책밴드*를 통화긴축을 의미하는 평가절상 방향으로 조정하였으며 10월에는 동 밴드를 확대하여 추가 절상을 용인

* 싱가포르통화청은 환율 정책밴드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량을 조절

4. 향후 전망

□ 신흥시장국의 인플레이션이 **주로 식품가격 상승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우려**[*]

* *Wall Street Journal,* Developing Nations Battle Rising Prices(2011.1.10)

o 생활필수품인 식품이 적절한 가격에 원활히 공급되지 못할 경우 사회적 동요와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

o 이에 따라 신흥시장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식품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

□ **일부에서는**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모든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여건 등에 따라 변동폭이 심한 일부 식품의 가격상승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

□ 그러나 **식품가격 상승의 배후에 구조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편**

* 공급면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라니냐 현상으로 세계의 주요 곡물생산지가 가뭄, 홍수 등의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수요면에서는 신흥시장국 생활수준의 상승[#]으로 고급 식품 및 육류에 대한 소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이 두 가지 요인은 구조적인 것으로서 단기간에 추세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Financial Times의 칼럼니스트 Martin Wolf는 이를 '위대한 수렴(the great convergence)'으로 지칭

o 주요 예측기관들은 금년 곡물가격 상승률이 작년에 비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옥수수는 25.1%(2010년 +14.7%), 소맥은 15.6%(2010년 5.7%), 대두는 4.6%(2010년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과도하게 높아진 가격수준에 대한 부담감으로 2/4분기부터는 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측

주요 예측기관의 곡물가격 전망[1)2)]

(센트/부셸)

	2008	2009	2010	2011[e)]				
				연간[3)]	1/4	2/4	3/4	4/4
■ 옥수수	527	374	429	537	570	550	523	505
	(41.2)	(-29.1)	(14.7)	(25.1)	(1.4)	(-3.5)	(-5.0)	(-3.3)
■ 소맥	795	529	582	673	715	700	648	630
	(24.7)	(-33.4)	(5.7)	(15.6)	(1.1)	(-2.1)	(-7.5)	(-2.7)
■ 대두	1233	1031	1050	1098	1150	1098	1083	1063
	(42.8)	(-16.4)	(1.9)	(4.6)	(-7.8)	(-4.6)	(-1.4)	(-1.8)

주 : 1) ( )내는 2010.12월 전망의 전기대비 상승률
2) 2개 기관 평균값 기준
3) 연간 상승률은 2010년 실적대비

자료 : JP모건(10.12), 바클레이즈(10.12)

⇨ 주요 투자은행들은 **2011년 BRICs 물가상승률이 2010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다만 인도는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6%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BRICs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1)]

(2011.1월 현재)

(%, %p)

	2009	2010(A)[2)]	2011(B)	B－A
브라질	4.9	5.0	5.4	0.4
러시아	11.8	6.9	8.0	1.1
인도	10.8	12.4	6.3	-6.2
중국	-0.7	3.2	4.4	1.2

주 : 1) 2011년은 5개 IB전망 평균, 단 인도는 2개 IB전망 평균
2)브라질 및 러시아는 실적, 기타국가는 2010.1~11월 평균

자료 :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UBS, Citi, Credit Suisse